



광주도시공사-한국승강기안전공단, MOU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빛고을고객센터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시민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광주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임대주택 승강기 안전캠페인 및 안전문화 확산 협력 △승강기 안전점검 및 개선 지원 △고장·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 △입주민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이다.

김승남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조선대, 2025 치과의료산업 발전 워크숍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는 지난달 24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산림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지원하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임상실증연계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의 수혜기업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학교 등 공동주관기관 관계자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지역 치과의료산업 수혜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2025년 기업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 안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치과의료산업 발전 계획 △연원물 개발 및 소재 유효성 시험 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동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와 협약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6일 전남도 환경보건센터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가 최근 병원 암센터 교육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기후 위기 시대에 복합적인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연보전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 △환경보건 등 관련 전문 분야의 정보 교류 및 기술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국립공원 체험행사 및 환경보건 캠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환경보건센터장 박원주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기후 위기와 생태계 변화 등으로 지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기후변화와 주민 간의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협약을 통해 생태와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중심의 협력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손영조 소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24년 3월 환경부로부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돼 화순전남대병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무등산국립공원의 협약을 통해 환경성질향상 예방과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노병하 기자**



소진공, 본부에 ‘청렴행동 다짐 팻말’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공단본부에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행동 다짐 팻말’을 제작해 설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청렴 실천을 다짐할 수 있도록 청렴행동 다짐 팻말을 제작했다.

이번 행동 다짐에는 공단 임직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편의 제공, 부당 지원 요청 등의 유혹을 차단하고, 공정성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실천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팻말은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동안 공단 본부 출입구를 비롯한 사무실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나다운 기자**



전남도,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 ‘성과’

전라남도는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025 에너지 특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전라남도과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가 공동 운영한 이번 시장개척단은 동남아 최대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인도네시아 국제 태양광 및 광전지 전시회(Solartech Indonesia 2025)’에 참가했다. 여기에 전남 지역 10개 에너지 특화 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 118개사와 총 172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신현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에너지는 전라남도가 중점 육성하는 전략산업으로,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현지에 알리고 신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업무협약과 실증사업이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 서구, 제31주년 서구민의 날 기념식 개최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1주년 서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서구민상 수상자(박철홍 회장, 김훈중 대표, 이미진 대표),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한-캄 기술교류회’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한컴중소벤처기업교류협회는 광주·전남 및 전국 벤처기업들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서 개최한 ‘한-캄 기술교류회 및 기업 매칭 콘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류회는 4월29일부터 5월2일까지 광주·전남을 비롯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들이 동남아 사업 확장을 위해 협회 박철희 상임고문, 광주테크노파크 윤승호 팀장, ㈜야나넷 구영모 대표, 위카모빌리티㈜ 정태영 대표, ㈜드림트리 윤선중 대표, ㈜셀리안츠 정우근 대표, ㈜에코피스 채인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문단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임시는 차관과의 간담회를 진행, 광주테크노파크 우수사례로 손꼽는 창업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업을 제안했다. **박소영 기자**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 ‘어른이날’ 행사

광주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남구구립천년나무어린이집은 지난 2일 어린이집 일원에서 원아, 학부모, 효덕동 지역 어르신 대상 ‘어른이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함께 축하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일환으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 등원 길에 동행한 학부모와 효덕동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료를 제공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열고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내에서 에어바운스 체험을 통해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하고, ‘할아버지의 동물농장’ 테마활동을 통해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 포토존에서 즐거운 추억을 사진에 담고,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최동환 기자**

‘야당’ 황금연휴 극장가 1위...올해 최고 흥행 한국 영화

황병국 감독의 범죄 영화 ‘야당’이 신작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황금연휴 극장가에서 흥행세를 이어갔다. (사진)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1~6일 83만1천여명(매출액 점유율 26.9%)을 동원해 해당 기간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5일 하루를 제외하면 닷새 동안 일일 박스오피스에서 정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개봉 후 줄곧 정상을 지킨 ‘야당’은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썬더볼츠’, ‘파괴’가 동시에 극장에 걸린 30일 3위로 하락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튿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공장 1위 자리로 복귀하며 관객몰이를 계속했다.

‘야당’의 누적 관객 수는 267만여 명으로, 설 연휴에 나온 ‘히트맨 2’(254만여 명)를 제치고 올해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가 됐다. **연합뉴스**



이 영화는 마약 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이익을 챙기는 브로커인 야당을 소재로 했다. 야당 이강수(강하늘 분)와 그와 공생하는 검사 구관희(유해진), 마약 밀매 조직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 오상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개봉 22일째에도 CGV 골든에그지수 97%를 기록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